

상상 속 무등산 호랑이, 전통·현대 경계를 넘다

(사)전통문화놀이연구소 창작연희극 '발광불개...' 22-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방신 설화 모티브... '무등산호랑이 연대기' 3부작 중 첫 번째 시리즈
전통적 몸짓·현대적 시각언어 조화 이룬 웅장한 스케일 무대 선보여



태양을 잃은 세상에서 사라진 빛을 찾아 나서
는 불개의 여정이 국악 무대로 펼쳐진다.
(사)전통문화놀이연구소는 오는 22-23일 오후 4
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작연희극 '발광불
개-사방을 지키는 신'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
연은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일
환으로 기획된 '무등산호랑이 연대기' 3부

작 중 첫 번째 시리즈다.
공연은 고구려 벽화 속 사방신과 '태양을 찾아
온 불개' 설화를 모티프로 한다.
대사 없이 국악 선율과 타악 리듬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놀이·상모돌리기·바나·죽방울
등 전통연희가 어우러진다.
여기에 미디어아트 영상과 조명 연출이 더해
져 전통적 몸짓과 현대적 시각언어가 조화를 이
루는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는 어둠과 빛의 대비를 중심으로 구성되
며, 조명 효과로 극의 감정을 극대화한다.
특히 청룡의 등장 장면에서는 여러 무용수가
군무로 용의 형상을 구현하며 웅장한 스케일을
전달한다.
공연은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협업해 완
성도를 높였다.
연출은 극단 깎지 대표 김호준이 맡았다. 김 연
출은 '모양마을사람들' (2017), '셰프의 밥상' (202



'발광불개-사방을 지키는 신' 공연 모습

4)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통과 대중성을 아우
르는 무대를 선보여왔다. 안무는 김선민 안무가
가 맡아 아크로바틱과 현대무용을 결합한 역동
적인 움직임을 선보인다. 음악은 국악콘텐츠제

작소 나랩 대표 김현무 음악감독이 맡아 전통음
악에 현대적 감각을 입힌다. 전통연희·음악·무
용 분야 출연진 총 30명이 함께한다.
'무등산호랑이 연대기'는 무등산을 수호하는

상상 속 존재 '무등산호랑이'를 중심으로, 지역
의 역사와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시
리즈다. 이번 '발광불개-사방을 지키는 신'을 시
작으로 '팔죽할멈과 호랑이-호랑아, 나랑 놀자',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천하제일 무등산호랑
이'까지 3부작으로 이어진다.
무등산의 옛 지명인 무등산·무정산의 의미와
김덕령 장군의 호국정신, 5·18민주화운동의 역
사 등을 호랑이의 상징성과 엮어 광주의 정신을
예술로 풀어내고자 한다.
정재일 (사)전통문화놀이연구소 대표는 "무등
산을 상징하는 상상 속 존재들이 전통예술로 되
살아나 지역의 자부심을 예술로 표현하길 바라
다"며 "불개의 여정은 곧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공연장에서는 관객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호랑이 관련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관객에게
는 무등산호랑이 굿즈가 증정되며, 퀴즈와 체험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공연 티켓과 오색버나 만
들기 키트가 제공된다.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 운영되는 '호랑이 놀
이터'에서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무등산
호랑이 키링 만들기', '소원지 쓰기', '무등산호
랑이 큰기놀이' 등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억눌린 억압의 시대, 인간 존재를 묻다

광주시립극단 '보이체크-1942'...20-2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게오르크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이 1942년
일제강점기 광주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광주시립극단 제25회 정기공연 '보이체크
-1942'가 오는 20-2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
장 무대에 오른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작가 게오
르크 뷔히너의 유작인 '보이체크'는 실존 인
물인 '요한 크리스티안 보이체크'의 기사를
읽고 그를 모델로 쓴 작품이다. 귀족이나 상
류층을 주인공으로 한 다른 고전들과는 달리
당시 하층민이 주인공이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인물들의 비참한 삶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표현주의 연극의
발전엔 큰 영향을 준 작품이자 독일 문학 작
품들 중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희곡이기
도 하다.
'보이체크-1942'는 원작 내용을 1942년 광



광주시립극단 '보이체크-1942' 홍보 스틸컷

주로 율거와 식민 권력 아래 인간성과 정신
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탐색한다.

이번 작품 연출의 묘미는 음악과의 앙상블
이다.
전통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한 음악으로
장면의 긴장과 재미를 극대화하고 관객의 몰
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보채 (보이체크) 역은 2022년 광주시립극
단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서 인상적인 연
기를 보여준 흥현선이, 오마리 (마리) 역은
'양림 in 광주' 주연인 김수옥이 맡아 열연한
다.
이밖에 이명덕, 최진영, 정일행, 양선영 등
지역 배우들이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친다.
장봉태 객원 연출가는 "연극은 무겁고 어
려운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문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며 "웃음과 비극이 교차하는 이번 작품이
관객에게 즐거움과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중학
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영화 '양양' 양주연 감독 북토크

21일 북카페 은새암

양주연 감독은 지난 달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양양' 개봉과 함께 동명의 저서 '양양'
을 출간했다. 책은 감독이 4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고모 '지영'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시
작된 탐색의 기록이다. 가족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한 여성을 다시 불러내는 여정을 담
고 있다. 개인의 서사를 통해 시대의 억압과
침묵을 비추며 지금의 사회에 남아 있는 구
조적 불평등을 성찰하게 한다.
'양양'이라는 책과 영화를 매개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재단 1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양주연 감독과
의 북토크 '지워진 여성의 이름을 소환하다'
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작품 소개, 북토크,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저서 '양양'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과 예술적 메시지를 나눈다. 시민



들은 책의
일부를 합
계 읽고 작
품에 담긴
시대적 의
미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
게 된다. 사
회는 김희정 감독이 맡는다.
책 '양양'은 영화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과 사유를 글로 확장
해 여성의 흔적을 복원한 결과물이다. 일상
의 언어로 풀어진 문장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내밀하게 가족과 세대, 기억과 침묵의 문
제를 마주하게 한다.
행사는 온라인 또는 전화(062-670-0634)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